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Satellite Petrochemical to begin active talks for \$717m VLECs

중국의 화학업체 Zhejiang Satellite Petrochemical(STL)이 6척의 VLEC(Very Large Ethane Carrier)를 건조 및 확보하기 위해 선주들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7.17억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며, 참고로 회사는 한국으로부터 첫 VLEC를 올해 말까지 인도받을 예정으로 알려짐. (TradeWinds)

## 조선3사 쉘의 LNG추진선 8척 수주 노력, 중국정부 금융지원은 복병

조선3사가 글로벌 에너지회사 로열더치셸(Royal Dutch Shell, 쉘)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수주를 노리고 있다고 보도됨. 쉘은 초대형 원유운반선 확정물량 4척, 옵션물량 4척을 LNG추진선 사양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주사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밉성파이낸셜리싱(Mingsheng FL)이나 보콤리싱(Bocomm Leasing) 등 중국 금융리스회사들과 용선에 필요한 선박금융의 조달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려짐. (비즈니스포스트)

## 두산중공업, 클럽모우CC 1천800억원에 매각...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두산중공업은 29일 클럽모우CC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나금융-모아미래도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클럽모우CC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의 대중제 27홀 골프장임. 하나금융 컨소시엄은 2주간 실사를 한다고 보도됨. (연합뉴스)

## STX조선, 전 직원 희망퇴직 실시

STX조선해양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고 보도됨. COVID-19 여파로 건조 물량이 없자 고정비를 줄이려는 의도라고 보도됨. 회사측은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으로 건조물량이 거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밝힘. (선박뉴스)

## 미쓰비시중공업, 미쓰이E&amp;S 인수 추진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산하 Mitsubishi Heavy Industries Marine Structure은 일본 특수선 전문업체 미쓰이 E&S의 조선사업 부문 인수 협상에 착수, 늦어도 올해 말까지 정식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인수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팬데믹은 리트머스 시험지

컨테이너선 시장 내 디지털화 수준이 COVID-19로 인해 검증되고 있다고 보도됨. 디지털화에 관한 한 해운업계는 다른 산업에 비해 뒤떨어졌다는 기존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사들은 글로벌 네트워크 인력의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화물의 수송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